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본 자

(시편 41:1~13)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본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본 자'

영화 킹콩은 한 영화감독이 야심을 품고 촬영을 위해서 해골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전설로만 듣던 괴물 킹콩을 만나게 되는데, 킹콩이 영화배우 앤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감독은 킹콩과 앤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대하면서 킹콩을 뉴욕으로 잡아오게 됩니다. 뉴욕에서 구경거리로 전락한 킹콩은 분노를 터트리며 뉴욕 시내를 휩쓸니다. 인간들의 빗발치는 공격 속에서 앤을 사로잡은 킹콩은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 포효하며 앤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설적인 괴물은 해골섬에 살다 잡혀와 본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실제로 70억 마리의 괴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킹콩보다 무지막지하고 참혹한 괴물이 들어있습니다. 킹콩은 동물적 본능으로 움직였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속에서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인격적으로 악한 괴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괴물이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느냐 정도일 뿐, 성인(聖人)으로 일컫는 사람들이나 교황이나 마피아 보스 속에 들어있는 괴물은 똑같습니다. 온전히 드러났을 때의 그 악함은 동일합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 속에 들어있던 괴물이 갓 태어난 아기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괴물이 자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나 아는 사람의 인생의 최대 과제는 이 괴물을 잡는 것입니다. 뉴욕을 활보하는 킹콩을 억제하기 위해서 빗발치는 폭탄을 퍼붓듯이, 인생 최대의 과제는 내 속에 있는 괴물을 손끝 하나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결국 나의 팔자나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못된 배우자나 직장 상사 또한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괴물이 인생을 망칩니다. 괴물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인생은 한 번에 파멸하는 것이고, 적게 나타난다 해도 끝없는 파멸이 반복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을 제어할 수 있다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이 사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 보면 사람들은 병상에 있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모함하고 가깝게 지내던 자들이 발꿈치를 들고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은총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주석서들은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에 체험했던 인간들의 배신과 그에 상반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윗은 병상에서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몸을 의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는 죄악을 억제하고 몸에 대한 마음의 의존성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몸에 질병을 주십니다. 마음으로 하여금 몸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병상에 누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기억합니다. 그 죄악은 바로 마음이 몸을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이 죄악은 자신 속에 있던 괴물이 나타났음을 뜻합니다. 본문은 자신 속에 있는 괴물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을 의존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흡입구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있던 괴물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며 이 괴물을 묶어놓기 위한 싸움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병상에 있으며 압살롬의 반역이 진행되던 시점으로 추측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반역을 준비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개적으로 궁궐 앞에서 작당을 하였기 때문에 병상에 있던 다윗 또한 익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1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다윗이 병상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병상에 있었지만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질병과 가난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은 ‘다알’로 나뭇가지처럼 매달려 있거나 흔들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나무의 굵은 줄기가 아닌 연약한 가지들을 일컫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약하고 가냘프고 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적용한다고 해도 상황적으로 이상하긴 합니다. 대체 다윗이 왜 스스로를 나약하고 힘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병상에 누워있다고 해도 다윗에게는 왕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한 나라를 통치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힘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체력으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왕좌에 앉아있다면 한 마디로 군사를 호령하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할 기력과 정신이 있었다면 차라리 대적들에 대해서 명령하여 얼마든지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5~9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모함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푸념만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왕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어나서 역모를 모의한 이들을 말 한마디로 참수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꾸지람을 듣고 회개했지만 죄는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암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4년간 사람들의 환심을 사며 아버지에 대한 역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를 방치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사건과 연관 짓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난 갈 때조차도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는 자신을 사울 집안의 시므이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변을 만류합니다.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입장을 동일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난한 자처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자신을 나약한 자로 여기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나빠졌다는 것

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약함은 자신이 선택한 나약함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밧세바를 볼 때에 아름답게 여겨서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 범했고 그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를 하자 자신의 나약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길 때에 능력이나 권력이 없어서 못 가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왕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을 때에 자신에게서 괴물이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긴 소원을 이룰 능력과 권력이 있을 때에 내 속의 괴물이 풀려나게 됩니다. 다윗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병에 걸려서 나약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약한 자가 되기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휘두를 수 있음을 스스로 묶은 것입니다. 반역하려는 자들의 모의가 들려왔지만 자신을 지키고자 또 다시 권력을 사용한다면 자신에게 숨어있는 괴물이 나타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해골섬에 살던 킹콩을 뉴욕으로 끌어내서 참사가 일어났듯이, 자기 속에 존재하는 괴물을 바깥으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를 나약한 자로 묶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고 역사상 영토를 최대로 넓힌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이고 알렉산더이고 칭기즈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을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가장 가녀린 가지처럼 여기며, 압살롬의 모반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꼼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라는 구절은 곧 '연약한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적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일지라도 스스로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처하는 자는 원수들을 앞에 두고도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체적인 활동을 하려할 때에 자신 속에서 괴물이 나옴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원수들의 손에 죽을지언정 내 속의 괴물은 키우지 말자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원수들은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게 놔두지 않으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면, 그 때에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보면 이것은 다윗의 문학적 자질에 의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어졌음을 느낍니다. 다만 이를 상식선에서 해석할 때에 그 진가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병에 걸렸더라도 다윗은 연약하거나 가난한 자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병약하게 여길 수 있고 거동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왕권을 가졌던 다윗은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강한자입니다. 결코 연약하고 가난한 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죽을병에 걸려 죽기 직전이 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을 가장 연약한 자로 인식하였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육체의 소원에 대해 움직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이 세상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때에 죄악이 나타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충신을 비열하게 살해하는 상식 밖의 괴물의 튀어나온다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을 묶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는 노래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서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이 노래에는 메시아 예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자의 자리는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야했던 주님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무력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손을 움직일 수는 있고 곧 기어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다리를 움직여 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살아있는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곧 그 예수님과 나를 같은 입장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움직여서 피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한 주체성을 발동시킬 때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괴물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수에게 당하는 것이 낫다는 심정으로 꼼짝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자처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괴물과 그 괴물을 꺼내려는 주체성의 활성화를 두려워하며 자신을 꽁꽁 묶은 다윗은 왕궁에까지 쳐들어온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왕좌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괴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괴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아 몸을 의존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

도 내 안에 괴물이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괴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에 원수들이 이끄는 대로 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꼼짝 않고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생애를 원수들의 뜻에 맞기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자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의 처지를 동일시함으로서 내 속의 괴물을 단단히 묶어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